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9 No.2, 97-112, 2026.10.
http://dx.doi.org/10.23089/jdca.2026.9.2.005
pISSN 2635-6856 eISSN 2734-0392

『홍재일기』를 통해 본 부안의 날씨와 농사

Weather and Farming in Buan through Hongjae Diary

임혜영(Haeyoung Lim) |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 italy01@daum.net

목 차

1. 머리말
2. 날씨의 표현
3. 날씨와 농사
4. 가뭄에 대한 대처
5. 맺음말

초 록

『홍재일기』는 농사에 종사하면서 관과 민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던 기행현이 기록한 것으로 매일 날씨가 자세하게 적혀 있다. 기행현이 날씨 현상 중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람과 비였다. 바람은 비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바람에 대한 관심도 비와 관련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농사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의 모내기만큼 수확량을 좌우하는 과정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강우량이 집중되고 모내기철에는 강우량이 적다. 그래서 해마다 모내기를 앞두고 가뭄을 걱정하였다.

특별히 가뭄이 심각해지면 관에서는 기우제를 지냈다. 통상적으로는 사직단이나 객사에서 지내지만 특별한 장소를 찾아 지내기도 하였다.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리시설을 갖추는 일이지만 부안 지역에서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일기 내용을 통해 제한된 환경 안에서 제방을 쌓고 관리,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 키워드 : 홍재일기, 부안, 날씨, 농사 기우제

ABSTRACT

The Hongjae Diary was recorded by Gihaeng-hyeon, and it details the weather every day. Among weather phenomena, Gihaeng-hyeon regarded wind and rain as the most important. Since wind is often associated with rain, it seems that interest in wind was also related to rain. In farming, there is no process that determines yield more than transplanting rice at the right time. However, in Korea, rainfall is concentrated from June to September, while it is low during the rice planting season. So every year, before planting rice, they worried about drought.

When the drought became especially severe, the authorities held rain rituals. They usually stayed at Sajikdan or the guesthouse, but sometimes at special locations. The fundamental solution to drought is to build water infrastructure, but it seems that Buan has been lacking compared to its surrounding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diary offer a glimpse into the efforts made to build, manage, and maintain the embankments.

Keywords : Hongjae diary, Buan, Weather, Agriculture, Ritual for Rain

• 논문접수 : 2026.09.09. • 최초심사 : 2026.09.17. • 심사완료 : 2026.10.06.

1. 머리말

『홍재일기』는 부안군 주산면 홍해마을에 거주한 기행현이 1866년부터 1911년까지 약 46년간 자신의 일상 및 견문을 기록한 것이다.[1] 기행현은 유생으로서 일기를 쓰기 시작한 1866년부터 몇 해 동안은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 준비를 위해 보냈지만, 아버지 사망 후 가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집안의 생업인 농사에 종사하였다.[2]

날씨가 농사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지, 『홍재일기』에는 날씨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날씨를 기술한 부분을 보면서 의아한 점이 있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들이 바다가 되었다고 걱정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가뭄이 심해서 힘들다는 기술, 또는 그 반대되는 기술이 여러 차례 보인 것이다. 부안이라는 지역이 어떤 환경이었기에 며칠 사이에 가뭄과 물난리라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걱정해야 했던 것일까.

그래서 일기 중 날씨를 구분하고 가뭄 또는 비와 관련 있는 기사를 정리해 보았다.[3] 그런데 거의 해마다 농사철이 되면 가뭄 때문에 걱정하는 기사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날씨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고, 농사가 전부인 사회에서 수확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의 확보를 반복적으로 걱정해야 했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노력 외에도 공동체의 준비, 관의 역할 등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날씨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물론 한 개인에 의해 기록된 일기만으로 날씨를 확정하고 지역에 끼친 영향을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홍재일기』가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관과 민의 중간 역할을 수행했던 기행현이라는 인물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자료로 삼기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하였다.[4]

2. 날씨의 표현

『홍재일기』의 내용은 큰 틀에서 기행현의 아버지 생전과 아버지 사망 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 생전에 그는 집을 떠나 암자 또는 주변의 서재에서 수학할 정도로 과거 준비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정사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다. 물론 농번기에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농사일을 도왔다. 그러나 그 외에는 매일 운을 내어 시를 읊고 대부분 그것으로 일기를 채웠다. 그리고 날씨를 기술하는 것도 학업의 연장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

1) 『홍재일기』의 발굴 과정과 확인 작업 등에 대해서는 김철배, 「전라도 부안 士族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전북사학』46, 2015. 참조.

2) 기씨 집안의 농사 규모나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임혜영, 「일기를 통해 본 지방사족의 일상생활 - 『홍재일기』를 중심으로-」,『전북사학』69, 2023. 참조.

3) 기행현은 과거 응시, 성묘, 求山 등을 위해 다른 지방을 방문할 경우 방문지의 날씨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일기의 날씨 내용이 모두 扶安의 날씨는 아니다. 다만 농사철에 장기간 여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해서 일기의 날씨를 기반으로 설명해도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4) 훈집이었던 기행현과 관련해서는 김영준,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군 훈집(訓執)의 역할- 『홍재일기(鴻齋日記)』를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77, 2023. 참조.

1866년 3월 10일 일기를 쓰기 시작한 곳은 예재(禮齋)였고, '기록을 시작하였다. 봄기운이 바야흐로 화창하였다'가 첫 기술이었다. 이후 날씨를 보면 '바람은 높았고 비는 가늘어졌으나 오후에는 쾌청하였다. 산천은 다시 좋아지고 만물은 절로 그 정취를 얻게 되었다'[5] '아침에 한 차례 비가 지나갔다. 봄바람이 부니 버드나무 빛깔이 절로 새롭다'[6]처럼 현상 자체에 감상이나 느낌을 덧붙여서 표현하는 예가 많다.

농사와 관련해서 기술할 때에도 '비로소 날씨가 개었다. 들에 농부들 노랫소리가 가득하다'[7] '곧 비가 그쳤다. 들마다 물결이 출렁거리니 農家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8]처럼 날씨와 더불어서 농부의 기분이나 마을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기행현은 아버지 사망 후 과거 준비를 중단하고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집안의 생업인 농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날씨 표현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9]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을 포함한 표현은 거의 보이지 않고 현상 자체에 대해서 적으면서 농사와 연관지어 기술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날씨 표현에서 중요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晴 · 陰 · 雨 · 雪 등 강우 관련이다. 바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여러 방향에서 분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에 따라 기단이 배치되고 바람도 다양하게 분다. 그리고 바람은 다른 현상과 함께 불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가을의 경우 동풍은 비, 서풍은 맑은 날씨를 동반한다.[10] 따라서 바람에 대한 관심도 결국은 비와 관련한 것이었을지 모르겠다.

晴은 '맑음'에 해당하지만 비나 눈이 그쳤을 때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날의 날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陰은 비가 그쳤으나 흐렸다거나 단순히 흐렸다 외의 표현은 없으나 가물 때에 비를 기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강우와 관련한 표현으로 보았다. 날씨 표현에는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은데 雨 · 雨色의 차이, 비나 눈이 내리는 정도 또는 모양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霏霏 · 絲絲 · 紛紛 · 飄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벼농사에 있어서 모내기는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모내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다. 그래서 농사 관련 표현은 주로 모내기 시기에 보인다.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은 대개 가뭄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모내기를 하지 못하거나 이미 심어놓은 모가 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일도 있었다.

가뭄이 심한 경우에는 그 정도를 '80세 노인도 처음 보는 가뭄' '개국 이래 처음 있는 가뭄'이라든가 '병자년보다 심한 가뭄'[11]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정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방죽 물은 모두 마르고

5) 1866.04.05.
6) 1867.03.03.
7) 1866.05.11.
8) 1867.05.25.
9) 이 구분은 아버지 사망 전 날씨 표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아버지 사망 후에는 감상이나 느낌을 덧붙이는 일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망 후 표현만을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10) 신영순, 정래진, 「농사속담 속 비[雨]에 대한 인식 및 예측」, 『한국민속학』74, 2021, 196쪽. 寒氣를 몰고 오는 북풍 같은 예도 있기 때문에 바람을 모두 비와 연결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11) 병자년(1876)은 가뭄이 심할 때에 비교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데 그해의 일기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없다.

만물이 타서 말랐다. 인심이 두려워할 만하다'고 하여[12] 가뭄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어제와 같았다[如昨]'는 일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로 날씨를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如昨으로 기술하면 대부분 그것만으로 날씨에 대한 기술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전날의 날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어제와 같았다. 남풍이 휘몰아쳤다.'처럼 그 뒤에 어떤 현상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뒤에 따르는 현상이 여러 가지여서 어제와 같은 기온을 가리키는지 또는 맑고 흐린 상태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사실 날씨에 대해서 분석하려면 如昨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점 때문에 논외로 하였다.

3. 날씨와 농사

자연 현상은 농사와 관련하여 수확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씨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학적인 예보가 불가능했던 그 시절, 사람들은 정월이 되면 대보름달의 모양을 보고 장기(長期) 날씨·풍흉을 예측하거나 농사에 필요한 비[穀雨]에 대해 점을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은 맞지 않을 때가 많았다. 실제로 일기에 보이는 1873년을 예로 들면, 정월에 친 점괘에는

4월 9일 입하(立夏) 비
25일 소만(小滿) 비
5월 12일 망종(芒種) 흡족한 비
27일 하지(夏至) 비
6월 13일 소서(小暑) 잦은 가뭄
29일 대서(大暑) 가뭄
윤달 15일 입추(立秋) 흡족한 비
7월 1일 처서(處暑) 흡족한 비
16일 백로(白露) 비오는 날과 맑은 날이 서로 반반[13]

이라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점괘가 맞는 날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이라서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소서와 대서뿐이었다. 윤달 보름, 처서에는 흡족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6월 30일에 기우제를 지내야 할 정도로 가뭄이 계속되었다.

나라 전체에 가뭄이 들게 되면 점치는 자들이 비가 내릴 날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던 것 같은데 '세상의 지술가(知術家)들이 모두 오늘 큰비가 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세 방울이 큰비인가? 해 저물 때에야 비가 부슬부슬 내려 밤새도록 부슬부슬 내렸다'[14]는 표현으로 볼 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결국 날씨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12) 1886.06.29.
13) 1873.01.07.
14) 1907.05.26.

가뭄, 홍수, 서리, 폭설, 일월의 변화 등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리고 모든 농사에 물은 중요한 요소이다. 더구나 기씨 집안에서 주업으로 삼았던 벼농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과 관련된 날씨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사회에는 천수답이 대부분이어서 수리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내리는 비는 한 해의 풍 · 흉을 결정지을 정도로 농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일기 내용 중 농업용수가 필요한 못자리 · 모내기 시기 등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15]

기씨 집안에서 보리는 쌀 다음으로 중요한 농작물이고 보리를 파종하기 위해서는 역시 때에 맞춰 물이 필요하지만 보리 파종 날짜는 누락된 해가 많아서 표를 작성할 때 포함하지 않았다. 농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부안 지역의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의 사정을 고려해서 확인해 보았다.[16] 그런데 '어제 밤중에 지진이 있었다고도 하고 혹은 큰 대포 소리였다고도 한다'[17]고 한 것처럼 지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역시 표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날씨와 농사 관련 기사

년도	못자리	가뭄기사	모내기	서 종	기 우 제	비 피해	풍·흉
1866		04.16	04.22/06.06	05.13/06.03			
1867		04.15	05.01/06.02	05.20			절반
1868	03.26		윤4.19/				풍
1869	03.11		04.28/05.27				흉
1870	03.13	04.22	05.03/06.09	05.21	07.20		대흉
1871		02.05	04.21/05.17				
1872	03.18	04.17	05.02/05.20				풍
1873	03.30	03.07	05.11/06.22	05.30	윤6.30		대흉
1874	03.02	06.16	04.26/05.10			05.25	면흉
1881	03.29	05.06	05.13/06.01			08.04	
1882	03.05	04.27	04.23/06.19				
1883	03.08	04.17	04.24/06.03	05.27	07.13	06.12∼18 장마	대풍
1884	03.21	03.29	05.15/05.27			06.13 07.15	흉
1885	03.03	04.09	04.21/			07.28	
1886	03.12	04.29	04.28/05.19				
1887	03.23	02.20	윤4.15/06.02		05.19		대흉
1888	03.06	04.20	04.27/	06.02·06	05.19·29		
1889	04.15	03.27	05.20/6.24				절반
1890	윤2.27	06.17	04.13/				
1891	03.12	04.06	04.25/06.14	05.27 06.02	05.23		
1892	03.22	05.11	05.9/윤6.09	06.04 08.12 윤6.1			
1893	03.01	05.22	04.12/05.12				
1894	03.13	04.22 09.28	04.24/05.20				
1895	03.27	05.20	05.09/윤5.01				

15) 1875 · 76 · 77 · 78년은 한 해 총평만 있고 1879년은 일기를 따로 엮었다고, 1880년은 일기를 책력(冊曆)에 편제(篇題)하였다고만 적고 있어서 날씨와 농사 활동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16) 일기 중 지진 발생 횟수는 모두 21회이고 대개는 1년에 1회였다. 그런데 1883년에는 1월 14, 15일 연이틀, 1898년에는 4월, 8월, 12월 일정한 간격을 두고 3회 발생하였다.

17) 1889.11.20.

년도	못자리	가뭄기사	모내기	서 종	기 우 제	비 피해	풍·흉
1896	03.08	07.25	04.21/05.18			05.24·29	
1897	03.22	04.23	05.07/		06.02·14		
1898	윤3.02	04.13	04.15/				
1899	02.22	03.30 08.27	/05.27	05.15·29	05.16		
1900	03.20	05.04	05.09/05.26				
1901	03.03	04.13 07.18	/05.22	05.27·29	05.20	07.09	
1902	03.06	05.26	04.28/05.14				
1903	03.25	05.23	04.28/윤5.26	윤5.24	06.05	07.14	대흉
1904	03.01	04.29	04.22/			07.08	
1905	03.11	05.13	05.06/		06.29	07.10·13	
1906	04.10	05.28	윤4.13/05.16				
1907	03.04	05.15	04.24		05.26		
1908	03.19	04.15	05.08/05.29	05.24		08.03	면흉
1909	03.05	04.15	04.16/		06.05		절반
1910	03.20	04.29 07.10	04.29/			05.29 06.04 11	흉
1911	03.23	05.17	05.8/05.27			06.14 20	흉

〈표 1〉을 항목별로 보면, 먼저 못자리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못자리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기씨 집안에서 못자리를 했다고 기록한 날 중 앞선 날을 적은 것이다. 못자리는 대체로 곡우(穀雨)를 전후하여 시작하였다. 모내기 항목도 기씨 집안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모내기를 시작한 날과 마지막 날을 나란히 적었는데 시작과 마지막 중 한 가지만 파악된 해에는 한 가지만 적었다. 못자리와 모내기 항목은 마을 전체가 반영된 해도 있고 기씨 집안에만 해당하는 해도 있다.

항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행현이 마을 전체의 농사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마을 전체 모내기의 진행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유는 모내기라는 작업이 집안의 노동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벼농사 과정 중에서 많은 노동력이 가장 집중적으로 필요한 단계가 모내기이다. 그래서 모내기 철이 되면 마을 내에서 일꾼을 구하지 못하여 이웃 면으로까지 나가야 했다. 더구나 모내기에 필요한 비[秧雨]가 늦어져서 미루어 두었던 모내기가 한꺼번에 진행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기 마련이었다. 그렇다 보니 1891년처럼 앙우가 늦어져서 일꾼을 구하지 못하면 기행현이 직접 모내기를 하기도 하였다.[18]

모내기는 못자리를 만들고 한 달 보름쯤 지나서 빠르면 4월 중순, 늦어도 5월 중순에는 시작한다.[19] 그리고 평년이라면 5월 말이나 6월 초순에 모내기를 마쳐야 수확에 지장이 없다. 그러나 물이 가장 필요한 모내기 철에 오히려 가뭄이 매우 심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해가 종종 있었다. 〈표 1〉에서 모내기가 가장 늦은 것은 1889년의 6월 24일이다. 1888년부터 시작된 가뭄이 1889년까지 이어지다가 6월 17일 '무릇 열넉 달 만에'비가 내린 덕분에 늦은 모내기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20]

대흉을 기록한 1873년에도 모내기를 포기할 정도로 가뭄이 심하다가 늦게나마 비가 내려서 어렵게

18) 1891.06.06·08.

19) 윤달이 있는 해에는 윤달이 언제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20) 1889.06.18. (1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침에 더욱 많이 내렸다. 작년 4월 이후 처음 보는 비였다. 하루 종일 그치지 않다가 저녁에 그쳤다. 들녘이 하얗게 되었다. 무릇 열넉 달 만에 내린 비다.

모내기를 하게 되었다. 그 사정을 보면

> 이미 몹시 심하게 가물다. 호미로 심은 모마저 모두 말라 죽었고 모심은 곳은 불이 난 것 같았다. (06.08)

> 새벽에 비가 내렸다. 하루 종일 큰물이 지더니 저녁에 하얗게 되었다. (06.14)

> 모내기 비가 너무 늦게 내린데다 물이 많아져서 모를 심을 수 없었다. (06.15)

> 화창하였다. 우리 마을의 모심는 일은 오늘 내일 사이에 끝마친다고 한다. (06.22)

로, 가뭄이 심해서 서종했는데 그것마저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가 며칠 후에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모를 심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모내기가 늦게 마무리되었고 농사 결과는 대흉이었던 것이다.

가뭄 기사 항목은 가뭄과 관련된 표현이 처음 나오는 일자인데,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봄 가뭄은 심했다가도 장마를 겪고 나면 대부분 해갈이 되는데 장마철이 지난 후에도 가뭄 기사가 계속 보이는 해(1894, 1899, 1901, 1910)의 경우에는 장마 후 가뭄 기사가 보이는 일자를 기재했다. 1894년에는 가을까지 가뭄이 심해서 '곳곳의 우물물이 모두 말라서 마을마다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21] 1901년에는 '곳곳에서 갯물이 모두 마르고 물고기와 게가 저절로 죽고, 볏잎이 마르기'까지 했다.[22]

가뭄이 심해서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되면 호미로 모를 심게 된다. 그래서 서종(鋤種)한 시기는 5월 말이나 6월이 되는 것이다. 서종을 하겠다는 결정은 농부가 경험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

> 신관(新官)의 하첩이 도착하였는데, … 중략 …'가뭄이 극심하여 높고 건조한 들에서는 일체 모내기를 하지 못했으니 아울러 모두 서종을 하고 면내(面內)에 지위하라.'고 하였다.[23]

고 한 것처럼 정상적인 모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뭄이 심하다고 판단하면 관에서 서종을 하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한편, 가뭄이 심해지면 기우제를 지내게 되는데 기우제 항목은 그 설행 일자를 적은 것이다. 기우제는 한두 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우제를 준비하는 중 비가 내려서 중단되기도 한다.

비 피해 항목은 홍수와 태풍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체로 6월 이전의 피해는 장마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로 입은 피해이고 7월 이후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보면 될 것 같다. 6월 이전의 홍수는 모가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에 큰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들판에 심은 모를 살펴보니 대부분 녹아 없어진 곳이 많았다'[24]고 하거나 물에 떠 버린 모를 다시 심어야 할 때도 있었다. 홍수가 심하면 '십 리 광야가 문득 가없는 큰 바다가 되었다'[25]고 할 정도가 되기도 하였다.

---

21) 1894.09.28.
22) 1901.07.18.
23) 新官下帖來到 … 日旱亢酷高燥諸坪一未移秧一併鋤種之意知委於面內云(1891.06.02)
24) 1896.05.24.
25) 1911.06.14.

반면 7월 이후 태풍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짐으로써 역시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집집마다 울타리가 부서지고 들마다 나락 이삭이 말라 죽고 콩이 쓰러졌다. 산이 무너져 나무는 넘어가고 소나무는 부러졌다. 들녘이 하얗게 되었다. 전에 없는 큰물이었다'[26]'비바람이 화곡(禾穀)을 어지럽게 흔들고 문전답 제방이 무너졌다. 비바람이 심해 사람이 왕래할 수 없었다.'[27]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내려 나무가 꺾이고 모래가 날렸다. 모진 바람이 지나간 뒤의 모습이 난리를 만난 듯하다. 화곡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28]고 한 기록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29]

풍 · 흉의 항목은 12월 말일 한 해를 정리하는 가운데 농사에 대해 평가한 것을 적은 것인데 평가를 내리지 않은 해도 많다.[30] 일기 내용 중에 '올해 농사는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처럼 수확 전에 풍 · 흉을 평가한 내용이 있더라도 수확을 마친 후 풍·흉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풍년을 예상했다가 수확 전의 충재(蟲災)나 냉해(冷害)로 흉년이 된 해가 있기 때문이다. 1869년은 1868년과 함께 가뭄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는 특별한 해이다. 앙우(秧雨)는 때마침 내렸고 필요할 때마다 비가 내려서 물 걱정이 없이 농사가 순조로울 것 같았다. 이후에도 날씨 때문에 농사에 곤란을 겪는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1869년이 흉년이었던 이유는 멸구[滅吳]로 인한 충재가 심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가뭄이 심했던 해로 기록된 1894, 1899, 1901, 1910년 중 1910년의 경우에만 흉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해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 날씨가 농사 결과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4. 가뭄에 대한 대처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 전후에는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부안 지역도 6월부터 9월까지 연 강수량의 약 62% 이상이 집중적으로 내린다.[31] 실제로 일기 중 봄철에 '가물다'는 표현이 없는 해는 1868년, 1869년 두 해뿐이었다. 1874년은 예외적으로 전에 없이 5월에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라고 할 정도였는데[32] 불과 20여 일이 지난 6월 16일에는 뒤늦은 가뭄이 매우 심하다고 적고 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농부들은'두레박을 사용하여 물을 길어다가 동쪽 기답에 물을 댔다'[33]거나 '목포강 나루를 보니 짝을 지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다가 백답(白畓)에 대고 있으니 가뭄을 이겼다고 할 만하

26) 家家籬落毁敗野野禾穗枯死豆太偃臥山崩木落松折野野生白無前大水也(1884.07.15)
27) 風雨亂打禾穀門前畓偃臥 苦於風雨人不通路(1885.07.28)
28) 風雨大作折木揚沙(1904.07.08.) 大風後形容如逢亂離而禾穀被害姑未可形言矣(07.09)
29) 1908년 8월 3일의 수해가 매우 심했다고 하는데 1일부터 비바람이 세게 불어서 석천(石泉) 후록에 표식을 세웠던 관송이 비바람에 볍혀 쓰러졌다(曉大吹西風風雨大作朝來小晴石泉後麓爲身俵立棺松昨夜風雨拔落故作伐)고 하는 것으로 보아 태풍으로 인한 수해임을 알 수 있다.
30) 1888.07.29
31) 최근 10년간 부안의 월별 강수량은 6~9월에 연 강수량(1,213.6㎜)의 62%(756.2㎜) 이상이 집중적으로 내린다. 주산면지편찬위원회, 『물 땅 사람의 주산』, 도서출판 밝, 2022, 27~28쪽.
32) 1874.05.25.
33) 1898.05.30.

다’[34]고 하였는데 과연 두레박으로 가뭄을 이겼다고 할 수 있을지. 또는 개암사에 ‘신화상불(神畵像佛)’을 내걸거나[35] ‘월포에 가서 … 기와 가마를 파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 그렇게 하면 비가 온다고 한다’[36]처럼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비가 내리게 된다고 믿고 있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두레박이 소용없을 정도로 가뭄이 심해지면 관에서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중앙에서 거행한 기우제는 장소가 규정되었지만 지방의 경우 제를 올리는 장소가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비교적 융통성 있게 제처(祭處)를 정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영험한 곳을 골라 제사를 지냈다.[37] 다음의 〈표 2〉는 일기 중에서 기우제를 지낸 장소와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기우제 장소

장 소	회 수	비 고
사직단	7	
객 사	4	무녀가 객사에 용 그림을 걸다
계화도	3	
변산 직소	2	관찰사(1)
熊淵	1	
기 타	6	사시(徙市)

일기 중 부안에서 설행된 기우제는 총 27회이다.[38] 1870년, 1873년, 1883년(2회), 1887년(2회), 1888년(4회), 1891년, 1897년(2회), 1899년(5회), 1901년(2회), 1903년(3회), 1904년, 1905년, 1907년 1909년에 각각 기우제를 지냈다. 설행 횟수로 볼 때 1888년, 1899년, 1903년은 가뭄이 심했던 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기우제가 설행된 장소를 알 수 있는 것은 20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직단, 객사, 계화도, 직소, 웅연, 성황단인데 가장 많이 설행된 곳은 사직단으로 7회이고 다음이 4회의 객사이다. 향교 내의 사직단이나 객사는 통상적으로 기우제가 설행된 장소였던 것 같은데 객사에서 지낸 것 중 한 차례는 무녀가 용 그림을 걸어놓고 지냈다고 하였다.[39] 용을 그려 붙이거나 용을 만들어서 빌기도 하던 방식은 용제(龍祭)라고 하여 삼국시대부터 전국 각지에서 성행하던 방법이었다.[40]

특별히 선별해서 기우제를 지낸 장소로는 계화도, 변산 직소, 웅연, 성황단이 있다. 변산 직소에서는 세 번 지냈는데 한 차례는 관찰사가 와서 주관하였다.[41] 관찰사가 직소에서 기우제를 지낸 것은 1888년으로 ‘개국 후 처음 보는 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던 해이다. 그래서 관찰사가 도내를 순행하며

34) 1906.04.26.
35) 以旱乾事開岩寺掛佛神畵像云(1888.07.05)
36) 往月浦見下西農軍會旗鼓鑿瓦窟問其故則雨來云(1870.07.08)
37) 하서정, 「조선후기 지방 기우제의 시행과 의미- 안동부사 金嘉鎭의 『祈雨日記』를 중심으로 -」, 『영남학』70, 2019, 132쪽.
38) 부안 외의 지역 이를테면 중앙 정부 또는 주변 지역에서 지낸 기우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39) 1892.윤6.01.
40) 정승욱, 「주술적 기우제의 통합 제의원리 탐색 시론」,『한국문학논총』72, 2016, 108~109쪽.
41) 1888.06.23

기우제를 지냈던 것이고 직소는 부안뿐 아니라 도내에도 영험하다고 알려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42]

계화도에서 기우제를 거행했을 때에는 '단 아래에 무덤을 치표(置標)한 것이 있어서 부수고 왔다고 한다'고 하였다. 이는 단 아래, 즉 명당이라고 추정되는 곳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일 개인 또는 집안의 발복을 위해 치표함으로써 특정인에게만 발복이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가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다.

시장을 옮기고 기우제를 지내는 경우는 6회 있었다. 일기 중에서 구체적으로 사시(徙市)한 곳을 알 수 있는 것은 상소산(上蘇山)과 남문 밖이다.[43] 왜 상소산과 남문 밖이 사시 장소로 정해졌는지 적고 있지 않아서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대체로 시장을 옮기고 기우제를 지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트여있는 강변으로 시장을 옮겨서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44] 둘째 시장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구름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한 것에서 착안한 방법이라는 것이다.[45] 셋째는 소통이 약해졌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불통 상태인 지금의 시장을 옮겨 소통이 원활해지면 음양의 기운이 다시 정상화되어 비를 내리게 하는 효험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이다.[46]

> 상소산으로 장시를 옮겼다. 성황단(城隍坍)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오시와 미시에 마침내 큰비가 내려 들녘이 하얗게 되었다.[47]

> 장시를 옮겨 기우제를 지냈더니 곧바로 큰비가 내려 사방의 들이 흡족하게 채워졌다.[48]

장시를 옮기고 기우제를 지냈더니 '마침내' 들녘이 하얗게 되고'곧바로' 사방의 들이 흡족하게 채워졌다고 쓰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단순히 기우제만 지내는 것보다 사시와 병행하면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일기에는 기우제의 제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 향교의 하인이 나왔는데 다시 기우제를 사직단에서 지내기 위해 관하첩으로 내려보냈다. 이전의 제관을 그대로 정하였다. 그래서 색장(色掌) 엄주수가 고목(告目)했다. 날마다 5개 단(壇)에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사직은 내일이라서 곧 향교로 들어갔다. 한밤중에 제를 지냈는데 본관이 스스로 수헌(首獻)이 되었다.[49]

> 오늘 밤에 웅연 기우제가 있는데, 현감은 살옥사(殺獄事) 때문에 친히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고 한다.[50]

---

42) 직소에서 기우제를 지낸 후 관찰사는 고부 두승산으로 이동해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1888.06.25.)
43) 1883.05.27 · 1891.05.23.
44)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46~47쪽.
45) 박계홍, 『한국민속연구』, 형설출판사, 1973, 186쪽.
46) 김재호,「사시기우제의 기우 원리와 시장의 소통성」,『한국민속학』50, 2009, 274쪽.
47) 1883.05.27.
48) 1899.05.16.
49) 校下人出來而更爲祈雨於社稷壇之意官下帖以前祭官仍任故色掌嚴柱壽告而逐日行五壇雩祭而社稷卽明日故卽入校中夜半行祭而本官自爲首獻(1887.05.19.)

관가에서 기우제를 두 번째 스스로 행하고 세 번째 향유(鄕儒)를 택망(擇望)하여 기우제를 지내라 하였다. 그래서 계화도 기우제의 수헌관으로 망보(望報)하였다.[51]

고 하는 기사를 보면 지방관이 기우제를 주관하고 있다. 다만 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재이(災異)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제관은 향유 중에서 차정(差定)하여 함께 지냈는데 마찬가지로 재이를 해소하는 역할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인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기행현은 1887년 사직단 전사(典祀)로 차정되었고[52], 1903년에는 계화도 기우제의 수헌관(首獻官)으로 망보하였다.[53]

다음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였을까. 일기에는 기우제 비용과 관련된 기술이 두 차례 있다.

① 주인이 와서 보여준 향교 회문에 '기우제에 든 비용, 제관의 여비, 봄철 향회 회기(會記), 순상(巡相) 조공(趙公) 원류 복합(願留伏閤), 존화록(尊華錄) 책값, 조룡(造龍) 무축(巫祝) 고소(告訴) 해서 모두 870여 냥인데 1호에 2전 1푼씩'이고[54]

② 향회 사목(鄕會事目)을 들어보니, 중략 … 도합 1,400냥인데, 호전(戶錢) 중에서 분배하여 거둔다고 한다.[55]

기우제 비용은 제를 지낸 후 경비를 산출해서 각 호에서 분담했던 것 같다. 대개 기우제는 사직단이나 객사처럼 관내에서 지냈기 때문에 제에 사용된 비용만을 부담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①을 보면 관외에서 제를 지낼 때에는 제관에게 여비를 지불했고 그 비용도 포함해서 분담했음을 알 수 있다.[56]

기우제가 가뭄에 대한 사후 대응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수리시설을 만드는 일을 들 수 있다. 멀지 않은 곳에 벽골제가 있었고 옥구에서는 운영하던 제언계(堤堰契)를 발전시켜 일찍이 수리조합을 조직한 것과 비교해 보면[57] 부안 지역에서는 수리의 혜택과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58] 그렇다고 생계를 위협하는 가뭄에 무관심했던 것만은 아니다. 공동체 내에서 나름의 노력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일기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59]

50) 1892.06.12. '경성에 큰 가뭄이 들어서 임금이 친히 기우제를 지냈는데 기우제관 김 모(某)가 즉사하였는데 기우제 하루 전에 개고기를 먹었다고 한다.(京城大旱上監親臨祈雨祭而祈雨祭官金卽死而前一日食狗肉云 1899.05.10)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51) 1903.06.05.

52) 1887.05.05. 한밤중에 기우제를 지냈는데 신관이 나와서 직접 거행했다고 하였다.

53) 1903.06.05

54) 主人來鄕校回文內雩祭所費也祭官路費也春間鄕會會記也巡相趙公願留伏閤也尊華錄冊價也造龍巫祝告訴也並八百七十餘兩每戶二戔ート式(1901.07.13)

55) 1907.08.22.

56) 1901년에는 기우제를 변산 직소에서 두 차례 지냈기 때문에 여비가 포함되었다.

57) 정승진, 「한말 일제초 전통 堤堰契의 근대적 水利組合으로의 전환: 萬頃江 하류 沃溝西部水利組合의 사례분석」『전북사학』34, 2009, 114~120쪽.

58) 주산면에는 현재 몽리면적 416ha에 달하는 사산저수지를 비롯하여 9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모두 해방 이후에 조성된 것이다. 부안군 주산면 소산리와 사산리, 보안면 등 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반상 화강암은 저수지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이었기 때문에 전근대사회에서는 수리시설 조성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주산면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20~22쪽.

59) 〈표 3〉에는 삼교평(三橋坪), 아이제(阿伊堤), 순제(蓴堤), 구산제(龜山堤) 등의 지명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삼교평에 제언을 쌓았다고 하고 나머지 지명에 제(堤)가 쓰인 것으로 유추해볼 때 수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3〉 수리와 관련된 기사

년 월 일	내 용
1883.10.20	① 삼교평의 제언을 축조하는 일로 백석(白石) 장내리에 가서 작인답고를 성책하였다.
1883.11.01	삼교평의 제언을 쌓았다.
1884.04.09	② 어젯밤 삼교평의 저수지가 무너져 터졌다.
1887.윤4.26	③ 아이제, 순제의 물이 다 말라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
1891.10.13	제방의 뒷면을 쌓았다.
1892.10.02	후제 둑을 쌓았다.
1892.10.05	④삼교평 둑 쌓는 일이 중도에 폐지되었다.
1892.11.24	삼교평 제방을 쌓기에 가서 보고 왔다.
1895.10.11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전후평(前後坪)에 언(堰)을 쌓도록 하였다.
1898.10.19	삼교평의 제언을 쌓았다.
1899.02.23	⑤ 구산제 쌓는 공사를 정지했다고 한다.
1899.03.30	⑥ 마을 사람들이 도랑을 쳐서 웅덩이를 만들었다.
1900.01.15	⑦ 행산·신기의 농군들이 후제(後堤)의 제방을 쌓고 걸립(乞入)해서 나락 2말을 내주었다.
1901.10.15	삼교평에 보를 쌓았다.
1903.09.23	⑧ 삼교평의 둑을 쌓는 날짜를 이번 달 그믐날로 정하였다
1903.10.12	삼교평에 둑을 쌓았다.

〈표 3〉에서 제방 관련 작업은 모두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 농사일을 모두 마친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규모는 도랑을 쳐서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하고(⑥), 가뭄에 물이 다 말라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③) 것으로 보아 그리 깊거나 넓지 않았던 것 같다. 비가 많이 내리면 무너져 내릴 정도로(②) 견고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60] 그렇다 보니 삼교평 제방은 여러 차례 보수를 하고 있다. ①에서 작인답고(作人畓庫)를 성책(成冊)한 이유가 삼교평의 제언을 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삼교평의 제언은 1883년 주변 농민[작인]들의 공동 작업으로 축조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인답고 성책이 관(官)의 요구로 이루어졌다면 제언 축조가 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일기에는 없다. 다만 ⑦의 '행산 · 신기의 농군들이 후제(後堤)의 제방을 쌓고 걸립(乞入)해서 나락 2말을 내주었다'를 보면 농사철을 앞두고 주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제방을 쌓았고 일을 끝낸 후 식사비 등의 경비를 지역 유지에게 지원받았던 것 같다.

삼교평의 제언은 자주 언급되었는데 ⑧의 '삼교평의 둑을 쌓는 날짜를 이번 달 그믐날로 정하고 회문(回文)을 써 주었다'고 한 것에서 마을에서는 제방의 상태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보수 작업에는 함께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업 일자 등은 관(官)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⑥) 때로는 ④와 ⑤처럼 순조롭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가뭄에 대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60) 저수지가 무너져 내리기 이틀 전(04.07)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날 오전까지 내리다가 정오에는 맑아졌다.

5. 맺음말

전근대사회 농민에게 있어서 한 해 농사의 성공과 실패는 그 해뿐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삶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농사의 성패는 날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뿐 아니라 관에서도 날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홍재일기』는 농사에 종사하면서 관과 민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던 기행현이 기록한 것으로 매일 일기 첫머리에 날씨가 자세하게 적혀 있다.

기행현이 과거 준비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날씨에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을 더해서 쓰기도 하였으나 집안의 가장이 된 후로는 날씨 현상 자체 또는 농사와 연관해서 기술할 때가 많아졌다. 날씨 현상 중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람과 강우(降雨)였던 것 같다.

다양한 원인으로 여러 방향에서 부는 바람 중에는 한기(寒氣)를 가져오는 북풍도 있지만 대개는 비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바람에 대한 관심도 비와 관련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상 현상 중 농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기씨 집안의 주업인 벼농사의 풍·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비에 집중하여 기술했던 것이다.

농사의 전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적절한 시기의 모내기만큼 수확량을 좌우하는 과정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강우량이 집중되고 정말 비가 필요한 모내기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해마다 모내기를 앞두고 가뭄을 걱정하고 있다. 좀 늦더라도 앙우(秧雨)가 내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종(鋤種)을 하거나 모내기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가뭄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가뭄이 심각해지면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행위를 하게 되고 관에서는 기우제를 지냈다. 일기에 나오는 기우제는 모두 27회인데 사직단이나 객사처럼 통상적인 장소가 아닌 계화도, 변산 직소, 웅연 등 특별한 장소를 찾아 지내기도 하였다. 또는 기우제를 지내면서 시장을 옮기는 일을 병행하였는데 단순히 기우제만 지내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다.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리시설을 갖추는 일이지만 부안 지역에서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일기 내용을 통해 제한된 환경 안에서 제방을 쌓고 관리,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만경강 수계에서 수리시설이 발달한 만큼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반면 동진강 수계에서의 수리와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일기에 나오는 아이제, 순제, 구산제 등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안 지역, 동진강 수계의 수리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주변 지역에 비해 수리 이용의 노력이나 성과가 부족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흉년이 들면 농촌의 민심은 흉흉해질 수밖에 없다. 살흉(殺凶)이라고까지 표현되는 대흉이 들면 거리에 굶어 죽은 시신이 방치된 채 있기도 하고 실제로 기행현은 동네 친구가 굶어 죽는 일을 겪어야 했다. 일기에는 그런 흉년에 관(官)에서 시행한 기민 구휼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검토해 보려고 한다.

참고문헌

『홍재일기』

김미희, 이상영, 노경희, 구자옥 (2009). 고농서(古農書)에 나타나는 천기예측(天氣豫測) 기술, 농업사연구, 8(2), 77-113.

김재호 (2009). 사시(徙市) 기우제의 기우원리와 시장의 소통성, 한국민속학, 50, 263-291.

김철배 (2015). 전라도 부안 士族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전북사학, 46, 179-199.

박규택 (2010).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 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횡묵의 『고성총쇄록(固城叢鎖錄)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24-248.

박충선, 윤순옥, 황상일 (2007). 전북 부안 화강암지역 뢰스-고토양 연속층의 퇴적물 특성과 기원지, 대한지리학회지, 42(6). 898-913.

신영순, 정래진 (2021). 농사속담 속 비[雨]에 대한 인식 및 예측, 한국민속학, 74, 169-212.

이연순 (2010). 『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중반의 날씨 기록과 표현, 韓國古典硏究, 21, 145-168.

이진교 (2015). 1899년, 가뭄과 기우제 그리고 전차 폭동, 실천민속학연구, 26, 223-249.

이희창 (2021). 자연 현상과 農占 문화의 사례 고찰 -한국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8, 451-483.

임장혁, 염희재 (2024). 시장의 기원설과 사시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일본연구, 60, 303-328.

임학성 (2007). 日記 자료를 통해 본 16세기 조선사회의 降雨 양상, 역사민속학, 25, 45-92.

임혜영 (2023). 일기를 통해 본 지방사족의 일상생활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69, 179-204.

정승욱 (2016). 주술적 기우제의 통합 제의원리 탐색 시론, 한국문학논총, 72, 105-146.

정승진 (2009). 한말 일제초 전통 堤堰契의 근대적 水利組合으로의 전환: 萬頃江 하류 沃溝西部水利組合의 사례분석, 전북사학, 34, 105-144.

주산면지추진위원회 (2022). 물 땅 사람의 주산, 도서출판 밝.

하서정 (2019), 조선후기 지방 기우제의 시행과 의미- 안동부사 金嘉鎭의 『祈雨日記』를 중심으로, 영남학, 70, 123-151.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Hongjae Diary』

Kim, Mi-heui, Lee, Sang-young, Roh, Kyung-hee, Guh, Ja-Ock (2009). A Study on the Technic of Weather Prediction in Old References, *Study on Agricultural History, 8(2)*, 77-113.

Kim, Jae-ho (2009). Principles of Market-Moving Rain Rituals and the Communicability of Markets, *The Korean Folklore, 50*, 263-291.

Kim, Chul-bae (2015). The Hongjae diary that Ki Haeng-hyeon wrote and the Economic Conditions of Buan Area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46*, 179-199.

Park. Kyu-taeg (2010). lnterrelation among Weather, Agriculture and People's Life, and P01icy in a Local in the Late Choson ln Case of 『Goseong Chongswaerok』 0 Hoeng-muk,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6(3)*, 224-248.

Park, Chung-sun, Yoon, Soon-ock, Hwang, Sang-ill (2007). Properties and Provenance of Loess-paleosol Sequence at the Daebo Granite Area of Buan, Jeonbuk Province,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6). 898-913.

Shin Young-soon, JUNG, Lae-jin (2021). A study 011 the recognition andprediction Of rain in agrtcultural proverbs, The Korean Folklore, 74, 169-212.

Lee, Yeon-soon, (2010). The Record and Expression of the Weather in the mid-16C in Mi-Am ilgi(眉巖日記), *Journal of Korean Classical Research, 21*, 145-168.

Lee, Jin-gyo (2015). Year 1899, Drought, Ritual for Rainand Electric Railway Riot, *Practical Folklore Studies, 26,* 223-249.

Lee, Hee-chang (2021). A Study on Cases of Natural Phenomena and Farming Divination Culture -Focusing on Korean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88*, 451-483.

Im, Jang-hyuk, Yeom, Hee-jae, (2024). A comparative folkloric study on the origins of the market and market-moving rain-making rituals, *Japan Research, 60*, 303-328.

Lhim, Hag-seong (2007). Aspect on Rainfall of Joseon in the 16th Century reflected in Diar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lklife, 25*, 45-92.

Lim, Hae-young (2023). Daily life of local Confucian Scholars through diary - Based on 『Hongjae Diary』,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69*, 179-204.

Jeong, Seung-wook (2016). A study on The Unificative Ritualistic Principle of The Shamanic Rituals for Rain, *The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72*, 105-146.

Chung, Seung-jin (2009).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Jeon-Gye to Modern Irrigation Association in Early Colonial Korea,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34*, 105-144.

Jusan-myeon History Compilation Committe (2022). The Master Mountain of Water, Land, and People, Balk Publishing.

Ha, Seo-jeong (2019). The Practice and Implications of the Local Ritual for Rain[祈雨祭] in the Late Choseon Dynasty, *The Journal of Youngnam Studies, 70*, 123-151.